

## 문화산책

## 윤 익

광주미술관장



오늘날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은 여전히 자연을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주제로 창작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원이 예술가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손길로 가꾸어진 자연인 동시에 문명과 야생, 인위와 생명이 교차하는 가장 밀도 높은 영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가와 조각가들은 정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빛의 유희와 계절의 순환,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압축적으로 마주하였다. 정원은 그들에게 단순한 풍경의 재현을 넘어, 내면의 사유를 투영하고 상실된 치유와 초월의 감각을 복원하는 완벽한 예술적 실험실인 셈이다. 이처럼 정원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단순한 자연 공간을 넘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그것은 문명과 자연이 만나는 접점이자, 이상향을 투영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삶과 죽음의 순환을 드러내는 상징적 무대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미술 속 정원 역시 이러한 다층적 의미를 간직한 채, 오늘날의 감상자들에게도 커다란 정서적 울림을 제공한다. 우선, 정원 그림은 치유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지베르니 정원을 무대 삼아 빛과 색의 미묘한 변화를 담아냈다. 연못 위에 부유하는 수련이 빛과 바람으로 흔들리는 수면과 함께 관람자에게 일상의 피로를 잊게 하는 고요함을 선사한다. 도시의 속도와 소음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이러한 화면은 잠시 숨

## 예술과 함께하는 초월의 숲: 정원, 기억과 치유 무대

고르기를 허락하는 심리적 피난처로 작동한다. 이는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린 테라피’처럼, 시각적 자연의 모사가 정신적 안정을 유도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원 그림은 기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원은 어린 시절의 마당을 포함한 고향의 풍경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정원 그림은 단순한 식물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관람자 내면에 잠재된 시간과 장소의 기억을 환기한다.

영국의 영화감독이자 화가, 설치미술가, 그리고 인권운동가였던 데릭 저먼(Derek Jarman, 1942~1994)은 말년에 병마와 싸우며 하나의 정원을 실제로 조성하였다. 이는 황량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명과 예술의 의미를 증명해 낸 장소로 현대 정원 예술의 걸작으로 알려졌다. 그가 일궈낸 ‘프로스펙트 코티지 정원’은 죽음을 앞둔 작가가 가꾼 정원으로, 보는 이에게는 사적인 삶의 흔적과 동시에 보편적 향수의 감정을 전한다. 그 정원은 개인의 정원을 넘어서 모두의 기억 속 공간으로 확장된다. 동시에, 정원은 존재론적 성찰의 장을 마련한다. 씨앗이 자라고 시들며 다시 피어나는 과정은 삶과 죽음, 유한성과 지속성의 순환을 은유하기 때문이다. 방문자들은 정원에서 생명의 흐름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저먼의 정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울림을 준다. 병약한 육신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는 행위는, 정원이 단순한 장식적 공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증언하는 공간임을 일깨운다.

루소의 자연주의 철학은 정원 예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루소는 인간이 본래적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고 순수한 존재였으나, 문명과 제도의 발달 속에서 소외되었다고 보았다. 그의 말대로 “자연으

로 돌아가라”는 요청은 정원을 단순한 조경이 아닌, 잃어버린 자연적 상태에 대한 회귀로 공감하게 한다. 모네가 가꾼 지베르니의 정원, 혹은 저먼이 병마 속에서 가꾸어 낸 정원은 문명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자연과의 합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감상자는 이러한 정원과 그림들 앞에서 루소가 말한 자연적 순수성을 잠시나마 회복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금 꿈꾸게 된다. 이는 낙원에 대한 상상력, 송고에 가까운 정서적 체험을 유도한다. 이때 정원은 치유와 향수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상실했던 인간 본연의 정서와 감정을 회복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결국 현대인이 정원 그림을 감상할 때 경험하는 정서적 의의는 매우 복합적이다. 그것은 고요한 치유의 공간이자, 사라진 시간을 되살리는 기억의 무대이며, 삶의 유한성을 일깨우는 성찰의 장이자,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적 체험의 세계이다. 그리고 루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원은 무엇보다도 문명과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연적 자유와 순수를 되찾게 하는 회귀의 장소이다. 정원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그림 속 정원은 그 이상의 울림을 담아낸다. 오늘날 정원은 현대인의 심리와 기억을 바치는 거울이며 삶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매개체로 자리한다. 마침내 결실과 사색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10월이다. 아시아예술정원이 자리한 중외공원에서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립미술관의 다채로운 전시가 성황리에 펼쳐지며 도심 속 예술의 향기를 더하고 있다. 싱그러운 가을바람이 머무는 아와 정원과 예술의 현장을 찾아 현대미술의 깊은 울림과 자연이 건네는 은은한 위로를 동시에 만끽해 보기를 제안한다.

## 특별기고

## 배 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

1948년 10월 1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이 올해로 78주기를 맞았다. 세월은 강산을 여덟 번 가까이 바꾸었지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역사지만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여순사건은 여전히 현재의 아픔이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큰 전환점이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오랜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 온 유족과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희생자·유족 및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하고, 유족 면담과 공적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힘써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신고 중심 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그 결과 9월 말까지 총 981명에 대한 예비접수 및 발굴 실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과 찾

## 78년 기다림의 진실 밝히고, 이제는 책임을 다할 시간

아야 할 희생자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진상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일이다. 희생자 의료·생활지원과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있으며,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5개 자치구 거주 유족까지 생활보조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7월 문을 연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신체·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순10·19평화문화학과 역사교육, 문화예술 사업, 역사유적지 보존·정비 등을 통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평화와 인권에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순사건이 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총 1만879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1만296건(94.6%)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처리했다. 특히 진상규명 신고 2610건에 대한 심의는 법정 조사기간 종료일인 10월 4일부터 약 한 달 앞서 모두 마무리됐다. 희생자·유족 신고 역시 총 8269건 중 7686건(92.9%)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남은 583건도 연내 차

질 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축적된 조사자료는 희생자의 피해 실태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내외 각종 기록과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중심으로 내년 4월까지 진상조사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완성이 곧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모공간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보고서에 담긴 조사 성과가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오는 10월 19일 순천에서 개최되는 제78주기 합동추념식의 주제는 ‘78년의 기다림,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순의 진실을 완성하겠습니다’이다. 여기에는 오랜 세월 진실을 기다려 온 유족들의 염원과 역사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이런 추념식이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국민 모두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78년의 기다림이 진실의 결실로 이어지고, 그 결실이 화해와 평화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다.

## 사설

## 전남광주 묶는 철도망 구축 ‘하세월’…대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60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병원,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통합시 주요거점을 잇는 주요 철도사업이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착공에 앞서 거쳐야 할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어서다.

철도 건설이 늦어질 경우 주민 이동은 물론 이와 연계된 산업·주거 개발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행정통합후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 생활·경제권을 넓히려는 통합시의 구상이 철도사업의 장기 대기와 맞물려 제동이 걸린 것이다.

먼저 광주와 인접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철도망은 경제성 문턱에 걸려 있다.

광주~화순선은 광주 소태역에서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이어지는 11.58km 노선으로 개통시 소태역에서 병원까지 약 13분에 이동할 수 있어 의료거점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하지만 2008년 추진 이래 낮은 경제성 때문에 제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잇따라 제외됐다. 2026~2035년 철도 투자 방향을 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현재 불투명하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상무역에서 효천역·대촌동·남평역·나주혁신도시를 거쳐 나주역까지 잇는 총연장 28.77km의 노선이다. 지난해 7월 예타 탈락뒤 효천역을 추가해 재신청했지만, 아직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가 필요한 단계다.

광주~영광 신산업선은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진곡·하남·평동산단, 광주송정역,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을 거쳐 영광까지 잇는 총연장 44.7km, 사업비 약 1조9000억원 규모가 들어가는 노선이다. 산업거점과 서해안 철도를 연결해 인력 이동과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이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광주~대구 198.8km를 잇는 달빛철도도 예타면제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철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이와 별개로 현재 운행하는 버스의 연결성을 높이고 환승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선 교통축부터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철도가 없는 구간의 이동을 버스로 보완하고 도시철도·시내버스와의 환승 부담을 낮춰 생활거점 접근성을 높인 뒤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연계하는 단계적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남지역 청년농, 농촌 정착 힘든 이유

전남지역 청년농업인이 농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임대농지 공급부족, 낮은 농업소득과 자금부담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 청년농의 공공임대농지 신청 면적은 753ha였지만 실제 지원 면적은 512ha에 그쳐 신청 면적 대비 지원율이 68.0%를 기록했다. 나머지 32.0%인 241ha(241만㎡)는 지원받지 했다. 초기 영농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공공임대농지는 농어촌공사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상속 농지 소유자 등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 소유자에게는 안정적인 매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농에게는 농지 확보 기회를 넓혀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농지 빌러기가 어려운 것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이 적체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농지를 매입했다 보유한 뒤 다시 청년농에게 임대를 놓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농지은행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전국 매입 신청 5345ha 농지중 약 2000ha만 사들여 37.9%의 매입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약 3300ha의 농지는 매입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영농 창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낮은 소득도 문제다. 이는 단순한 출발 자금 문제를 넘어 농지구입과 투자능력을 동시에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팜 등은 초기 시설 도입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등 시작을 증명한 뒤에 나오는 구조라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워 반기 힘들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을 받더라도 농업 소득 증빙이 어려워 가계 대출로 분류돼 한도가 낮다. 여기에 살 만한 빈집이 부족하고 의료·교육·편의시설 부재로 가족 단위 거주가 어려운 생활 인프라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

청년이 마을의 주체로 인정받기보다 노동력만으로 쓰이는 구조로 육아·문화 등 청년이 살고 싶은 공간보다 기존 어르신 중심 시설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 재원을 제때 제때 확보해 농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등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기고

## 오 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매일 접하는 먹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고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는 일은 자각히 당연한 일상이다. 하지만 극심한 기후위기를 맞닥뜨린 지금, 과연 우리는 앞으로도 이 먹거리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가뭄과 홍수로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국제 분쟁으로 식량 교역길이 막힌다면 당연히 걱정할 여겨왔던 밥상의 풍경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다. 식량안보는 더 이상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2년 전 방문했던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IRRI)가 떠오른다. 이곳은 과거 한국 연구진과 협력해 ‘동일벼’를 개발하며 식량 자급의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장소다. 가장 인상 깊었던 종자은행에는 13만여종의 벼 종자가 보관돼 있었다. 다양한 씨앗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씨를 퇴출 새 씨앗을 받아내고, 품종 개발이 필요한 전 세계 연

구기관에 무료로 나누는 따뜻한 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맞춰 가뭄과 홍수를 건디는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식량안보의 막중함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밥상이 풍족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안일하게 여겨온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됐다.

이 값진 경험은 올해 농사를 직접 배워보고자 ‘토종학교’에 다니면서 다시금 선명해졌다. 토종학교에서는 절기를 배우고, 흙에 직접 씨앗을 심고, 잡초를 매며, 가을에 거둔 결실로 다 함께 밥상을 차려 먹는다. 그리고 내년 농사를 위해 다시 씨앗을 받아둔다. 씨앗이 밥상이 되고, 그 밥상이 다시 씨앗으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순환의 고리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과정이다.

일주일 사이에 찾아가 본 밭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했다. 작고 까만 씨앗이 파란 싹을 틔우는가 하면, 어느새 잡초가 작물보다 무성하게 자라나기도 했다. 땅에 심어두기만 한다고 작물이 스스로 자라주는 법은 없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땅을 다져 고르고, 모종이 제대로 자라나는지 제때 맞춰 정성껏 돌봐야 한다. 단 한 번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솔하게 밭을 오가는 농민의 노력을 직접 지켜보

면서, 비로소 밭상 위에 올려진 먹거리 하나하나에 담긴 노고와 무게를 가슴 깊이 알게 됐다.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차려낸 밥상 앞에서는 음식 이야기가 자연스레 농사 이야기로 흐른다. 단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일차적 소비를 넘어, 이 식재료를 누가 어떤 마음으로 키워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흙을 만져본 작은 경험은 농업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지역 농산물을 꾸준히 소비하고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함께 귀 기울이게 만든다.

광주와 전남의 교류와 상생 역시 농업과 먹거리를 매개로 더욱 넓어져야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내가 전남의 밭에서 농사를 배우고 밭을 나누며 연을 맺었듯, 도시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 구역 통합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온기를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

함께 심고, 나눠 먹고, 다시 씨앗을 받는 작은 경험은 밥상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실이자 서로의 삶을 품어주는 과정이다. 이 작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농촌을 향한 온정도 깊어지고, 광주와 전남이 나아가길 참된 소통과 화합의 길도 비로소 환하게 열릴 것이다.

##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 회장 양진석                                                                         | 대표이사<br>발행인 | 차재진 | 사<br>장<br>정임인                                                        | 이승배                                                                                    | 주필 김상훈                                                               | 편집국장 최현수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     | 정 치 부 370-7040<br>산업경제부 370-7020<br>사 회 부 370-7030<br>문화체육부 370-7234 | 논 설 실 370-7200<br>임 원 실 370-7000<br>총 무 국 370-7093<br>사 업 국 370-7090<br>광 고 국 370-7070 | 면 집 부 370-7082<br>독자관리국 370-7080<br>사 진 부 370-7050<br>서술자실 ☎978-7090 |          |
| 1995년 12월 12일 창간<br>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                                                                      |          |
|                                                                                |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                                                                      |          |

|                                                                                            |                                                           |
|--------------------------------------------------------------------------------------------|-----------------------------------------------------------|
|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br>이메일 gndn2018@naver.com |
|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                                                           |